

고려대-SMD 'OLED 연구'

고려대(총장 이기수)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(대표 조수인)는 유기발광다이오드(OLED) 공동 연구에 나서기로 하고 21일 양해각서(MOU)를 맺었다고 밝혔다.

두 기관은 고려대 산학협력단 산하에 '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-고려대 OLED연구센터(센터장 주병권 교수)'를 설립하고, 고려대 전기전자전파공학과와 기계공학부를 중심으로 OLED 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에 집중기로 했다.

김영근 고려대 산학협력단장은 "이번 협정을 통해 대학은 연구경쟁력 강화와 인재육성, 기업은 관련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과 전문가 확보라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윈윈모델이며, 두 기관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"이라고 밝혔다. **안경애기자**



김성철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전무, 성만영 고려대 공대학장, 김영근 고려대 산학협력단장(왼쪽부터)이 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